

복식에 표현된 미래주의 양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 Giacomo Balla 와 Fortunato Depero 중심으로 -

박윤정 · 양숙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본 논문의 목적은 20세기초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미래주의(Futurism) 예술양식의 특징을 미학적, 이론적, 조형적 특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당시 대표적인 미래주의 작가인 자코모 발라(Giacomo Balla)와 포르투나토 데페로(Fortunato Depero)의 의상디자인을 살펴봄으로서 이것이 현대 의상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의상에 있어서 새로움에 대한 추구는 그 이전의 어느시대 보다도 20세기 초에 더 많이 이루어 졌다. 특히 예술분야에서 많은 영향력있는 사조들이 산업혁명에 따른 근대화와 더불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아래 등장한 이탈리아 미래주의(Futurism)는 생활전반에 걸쳐 사조의 변화를 꾀하면서 다수의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기존의 가치와 문화에 대한 혁신을 가져온 운동이었다. 미래주의는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해 침체되어 있었던 이탈리아를 현대미술의 새로운 주류로 내세우기 위한 의도로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래주의의 새로운 이념적 방향은 마리네티(F.T. Marinetti)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09년 미래주의 선언을 기점으로 많은 선언문들이 발표된다. 이는 과학과 고전주의의 거부, 미의 새로운 이상, 과학과 기술에 의한 발전된 문화생활의 혁명적인 변화를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이상의 가치가 되었다. 미래주의가 지향하는 근본적 미학의 특징은 베르그송(H.Bergson)의 반결정론적 생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것은 직관, 지속, 변화, 기억, 시간 등으로 예술의 창조성은 수학이나 자연과학 처럼 분석적이고 명료한 이성에 의해 구체화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며 창조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는 직관에 의한 것이라는 철학이념이다. 여기서 지속이란 기억을 매개로 부단히 변화하고 운동하는 의식상태가 질적 다양성을 가지고 전체로 융합되어지는 것이며, 의식과 의식 사이에 기억의 단절됨 없이 연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니체의 예술론을 통해 위험, 속도, 투쟁, 도시적이고 기계적인 미래 생활을 찬양하고 있다. 이론적 특징은 미래주의의 기본 이념인 기술에 의해 새로운 인간상을 형성하고 기계를 통해 역동성과 속도감을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데페로는 미래주의자들이 표방하고 있는 전위성을 모든 전통과의 단절, 기계기술의 적극도입을 통해 예술의상을 하나의 구조물로서 파악하고 새로운 조형의상을 탄생시켰다. 조형적 특징은 역동성(Dynamism)으로 단순히 역동적인 다이나미즘 뿐만 아니라 3차원적인 형태와 빛과 소리까지도 표현하고 있다. 보치오니(Umberto Boccioni)는 형태의 경적도나 윤곽선을 파괴하고 공간속에서 역동적인 연속성을 창조하여 힘과 공간의 동시적 표현으

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역동성은 제1기에 신인상파의 분할주의를 이용한 표현성이 강한 상징주의의 상태를 동시성에 이입시켜 빛에 의한 분할주의 이론을 새로운 색채 처리 방식으로 표현하였고, 제2기에는 입체파가 도입됨으로 새로운 표현형태인 동시성(同時性)이 등장하게 된다. 동시성은 입체파의 정적 화면에 부상되어 활발한 활기를 띄며 서로 다른 시점의 상들이 같은 화면에 반복되어 모든 상이 해체되고 구축되어 입체파의 화면분할로 나타난다. 그러나 입체파가 조형예술에 한정되어 공간과 본질 탐구한 반면, 미래주의는 인간사 전반에 걸친 움직임과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탐구하였다. 미래파는 이후 다다 및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주었으며, 조형 예술 분야에서는 키네틱 아트나 옵아트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미래주의적 경향은 당시 의상에도 잘 나타나 있다. 자코모 발라(Giacomo Balla)는 의상을 디자인한 최초의 미래주의 화가이다. 그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통에 반대하여 새로운 규범의 의상을 창작하게 되었고, 이것은 현대 의상 디자인의 초석이 되었다. 발라는 최초의 미래주의 패션 선언서인 "미래주의 남성복 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미래주의 의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다이나믹한 특성으로 삼각형, 원추형, 타원형, 나선형 등의 다양한 문양과 색상을 이용한다.

둘째, 비대칭성으로 소매단이나 자켓 앞단을 오른쪽은 등글게 하고 왼쪽은 각이지게 만들어 비대칭적으로 디자인하여야 한다.

셋째, 몸을 경쾌하고 빠르고 생동감있게 움직일 수 있는 민첩성을 중시한다.

넷째, 입고 벗기에 편하도록 꼭 필요한 단추만 달아서 단순하고 편리하도록 한다.

다섯째, 위생성으로 몸의 조이는 부분 즉 허리띠를 모두 없애고 모든 세포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색채의 다양성으로 무지개 빛의 다양한 색상과 소재를 사용하여 다양함을 나타낸다.

일곱째, 인광을 발하는 광택소재를 사용하여 계절의 새로운 다양성을 나타낸다.

여덟째, 힘있고 공격적이며 지배적인 색상을 사용하여 강한 의지력을 보여준다.

아홉째, 날아갈 듯 하고 통풍이 잘되는 소재를 사용한다.

열번째, 짧은 내구성으로 항상 몸안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한다.

열한번째, 변화의 가능성으로 악세서리나 각기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어디서나 의상을 착용자의 의도에 따라 달리 변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한다. 즉 자신의 기분에 맞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때로는 강제적일 수도 있으며, 외교적일 수도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다이나믹한 즐거움을 창조해야 한다는것이 발라의 주장이었다. 자신의 의상에 색상과 형태의 변화를 주려하였던 발라는 미래주의의 취지대로 활력적이고 다이나믹한 예술작품을 만드는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직접 자기 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

발라와 함께 테페로(Fortunato Depero)도 많은 무대의상을 창작하였는데, 그의 의상에 드러난 역동적이고 기계적인 이미지의 정형화는 그의 회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특히 그의 회화작품은 "현대의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좀 더 일상적인 현대 남성복과 여성복의 또 다른 이미지가 1920년대 후반 미래주의 남성복을 위한 데

페로의 사상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데페로가 디자인한 대표적인 무대의상은 스트라빈스키의 발레의상으로 실제로 이 무대에 등장한 의상들은 조형적인 다이내미즘의 화려함으로 묘사되어졌다. 그는 추상적 리듬을 받아들여 디자인의 화려한 색채와 뚜렷한 형태를 강조함으로써 자기 회화의 동화적이면서 생기 넘치는 상상력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사회주의적인 리얼리즘과 상징적인 표현방식은 당시 다른 미래주의 작가들과도 구별된다.

이러한 미래주의 의상의 경향은 현대 의상 디자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 디자인 상의 역동성(Dynamism)이다. 즉 미래주의자들이 정적인 개념이 제거된 동적인 다이내미즘을 추구하였는데 이것은 직물 분야에 나타난 역동적 이미지나, 추상적이고도 비대칭적인 특징의 밝고 대담한 색채를 사용한 도시의 미래 지향적 이미지를 추구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의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재료를 상징적으로 이용한 “조형 역동주의”로 표현되고 있다. Balla의 의상에 나타난 경쾌한 색채와 역동주의의 상징적 문양은 Pop Art의 선구자였던 Andy Warhol이 디자인한 Warhol look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발라(G. Balla)의 의상디자인에 나타난 비대칭성을 들 수 있다. 발라는 자신이 디자인한 조끼 디자인에 나타난 형태와 문양에서 비대칭적인 조형성을 보여주었다 즉 단추가 없이 한쪽으로 여미게 되어 있는 형태와 좌우의 비대칭적인 삼각형 문양은 현대의상에서도 또 다른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 1990년 매뉴엘 피나(Manuel Pina)는 삼각형의 불규칙한 입체형태를 배열한 디자인을 보여주었는데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된 비대칭적 구성방법은 의상의 형태와 구조, 색채를 통해 새로운 실루엣의 비대칭적 미래패션 경향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조형성으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의상이 인체와 움직임 그리고 2차원적인 직물을 매개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질서있게 표현한 시각적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예술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데페로(F. Depero)는 동력소음파의 이론가로서 발라와 함께 조형적 의상(Costumes Plastiques)을 연구하였는데, 그의 현대의상은 그 표현욕구의 다양화로 이러한 키네틱 아트의 특성인 동적효과와 공간감을 주요 요소로서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파코라반이 디자인한 현대 의상디자인은 이러한키네틱 아트의 표현방법 중 대기의 움직임과 그 자체의 역학적 특성을 복식조형에 이용한 것으로 의상에 장식된 화려함과 새로운 구조적 형태를 표현하여 리드미컬하고 동적인 4차원적 공간감을 나타낸 새로운 형태의 조형예술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미래주의가 조화와 비례 통일과 같은 기존의 미의 개념을 부정하고 기계적인 속도의 메카니즘을 찬양한 기계미이다. 오늘날 파코라반이 디자인한 이브닝 드레스는 이러한 미래주의에 기계적인 메카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메탈을 사용하여 기존의 의복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정교한 장식과 세련된 형태로 새로운 기계적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미래주의자들이 이전의 전통적인 숭고함이나 이상적인 미를 즐기고 존엄하고 거룩한 복식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새로운 현실에 맞는 의복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반전통성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현대의상에서 디자인의 원리와 요소에 맞추어 구성하던 기존의 패션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시키고, 몸의 움직임과 착용자

의 내면세계에 따라 의복형태를 결정하려한것과 일치한다. 즉 의상의 해체와 분열을 통해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으며, 내의의 겹옷화, 겹으로 나타나는 술기의 처리, 서로 상반된 소재의 조화와 분위기를 이용하여 생동감있고 창의력이 풍부한 의상을 디자인 하려는 것과 일치한다.